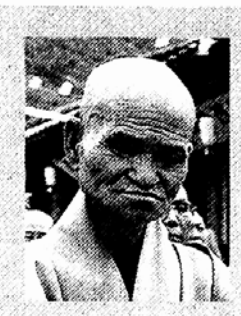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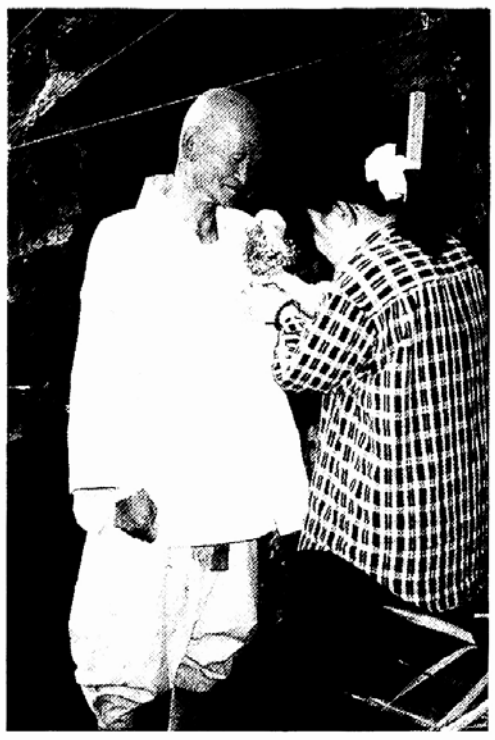
도천스님은

91세 불구 365일 울력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나신 도천스님은 19세에 "도를 이루겠다"며 금강산 마하연에서 수월스님의 제자인 신묵언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여년간 금강산 마하연 신계사 묘향산 유점사 법왕사 등에서 수행해 온 스님은 전쟁으로 금강산이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자 남한으로 내려왔다. 범어사와 내원암 칠불암 해인사선방을 거쳐 금강산과 산세가 비슷한 대둔사 태고사에 방부를 들이고 공양주 소임을 보았다. 태고사에 팔치산이 들어오자 묵언을 하고 7일 단식을 하다 마지막으로 태고사에서 나왔다. 스님은 '난리통에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분이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제대로 도량을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6·25전쟁으로 불에 타 아무것도 없는 태고사로 62년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태고사 터에 움막을 하나 짓고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40년간 두문불출 지금까지 불사를 계속 해왔다.

스님은 묵언을 지키고 계행이 청정하며, 철두철미한 보살행, 백장청규에 따라 오로지 일만 할 뿐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 '수월가풍'을 세우고 있다.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청년 불자가 감사의 꽃을 달아드리자 기뻐하고 있는 도천스님. 스님은 이때에도 "놀지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가지 집중해서 땀흘려 일하면 탐·진·치 눈녹듯

가면 택시를 타고않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양하신다. 돈을 쓰고 안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삼보정재이기에 개인적으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평소 부처님 같이는 못하더라도 천만분의 일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삿된 것이 많은 세상일수록 정법을 지키고 검약하려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과 수행을 함께하는 백장청규의 정신이 살아 있는 '수월가풍'. 태고사에 사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누구나 기도정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둘 중 한가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

스님은 1929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평생 수행하며 살 것'을 발원하며 출가했다. 은사는 평생 묵언수행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며 법명까지 '묵언'인 '신묵언스님'. 묵언스님은 도천스님이 찾아가 제자되기를 청하자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허락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후 16년간 스님은 잣나무 잎을 따먹으며 은사인 묵언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묵언스님은 2층 정자에서, 스님은 1층에서 생활하며 새벽3시에 일어나 죽비로 예불한 뒤 온종일 은사스님과 일하고 수행했다.

그 묵언스님의 은사, 즉 도천스님의 할아버지가 바로 수월스님이다. 수월스님이 방아찧으면서 한발을 들어서 방아에 올려놓고 조시는데 방아공이가 위에서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허공에 있자 방앗간 주인이 놀라 도인임을 새삼 알았다고 하는 일화는 유명하다.

수월스님이 도인으로 소문나자 주석하고 계시던 북간도까지 찾아온 스님과 신도들이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에 아랑곳 않고 항상 하던대로 밖에 나가 묵묵히 일만 하셨다고 한다.

평생 일하고 기도했던 수월스님은 입적하자 마자 7일7야 방광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백장청규 가풍을 철저히 지킨 수월 묵언 스님 가풍을 그대로 전수받은 도천스님은 한마음으로 일에 전념해 태고사에는 어느 한곳 스님의 땀과 손길이 거치지 않은곳이 없다.

"요즘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편하게 살려고만 해. 그런데 호강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작용해 나타나고 결국에는 수행과는 전혀 먼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을 몰라."

스님의 경책은 그저 한가지에 집중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면 탐진치 삼독이 눈녹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게 되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는 법을 설명하신 것이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상(相)내는 마음도 저절로 사라져 수행의 첫걸음이 되는,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를 알게 된다는 말이다.

스님은 흙 속에 묻힌 돌멩이를 골라내시며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신다.

"인간은 누구나 나고(生)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 것(死)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러고 보면 인생은 너무 짧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죽으면 벗어놓고 갈 육신을 왜 그리 아껴. 부자와 가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 뿐이야. 그러니 남의 물건 탐낼 것도 없고, 부자는 자신이 잠깐 맡고 있는 물건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줘야 해"

중생사는 너나 할 것 없이 육도윤회(六道輪廻)를 한다며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중생들은 자신들이 지은 업(業)에 따라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수레바퀴처럼 반복하지만 이 이치를 몰라 금생에서 벌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계곡 울리는 곡괭이 소리 마치 법문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3천년에 한번 올라오는 거북이가 바다에 떠 있는 나뭇가지 잡기보다 힘들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자리 찾는 공부를 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불자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다.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많이 알려 한사람이라도 빨리 깨우치게 해야 한다"며 "불자들은 한시라도 놀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여 남과 후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당부 또 당부하셨다.

스님의 이런 생각은 태고사에 그대로 화현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도인들을 배출할 도량이 완성되고 있고,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정진 중이다.

태고사로 들어온 68년 10월 보름에 입재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3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는 정안스님(59세). 스님은 지난해 1만일 기도를 회향하고 곧바로 또다시 일체 중생 구제, 세세생생 영가천도, 보현행 실천을 발원하며 1천일기도 입재에 들어가 내년 2월 회향한다. 정안스님은 "어렵더라도 계속 기도하라며 길을 제시하여 부처님 가피를 알게 해준 은사스님을 존경한다."며 "스님의 뜻을 이어 중생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정안 스님은 또 "은사스님이 죽자사자 열심히 일하고 계행을 철저히 지키시니 아랫사람들도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며 "몇십년간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뭔지 모를 힘이 태고사에 뭉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을 내려오며 계곡을 울리며 들려오는 곡괭이 소리가 '항상 기도하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라'는 스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석문 앞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뒤돌아 보니 관음봉 아래 자리잡은 태고사를 중심으로 관음대 지장대 보현대 오백나한대가 잣나무숲 사이로 우뚝 우뚝 솟아 있다. 그 위로 넓게 펼쳐진 맑게 갠 하늘은 언제 새 찬 비바람을 뿌렸냐는 듯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난 317호 '관응스님' 기사와 관련, 해당사찰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점을 사과드립니다.



수완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정원스님 (2)

정원스님께서 26, 7년 전 강원도 철원 심원사 주지를 하실 때의 일이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법요식 할 때 쓰는 법요집이나 독송용 책이 매우 귀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노트에 직접 베껴 썼고, 좀 낫다는 것이 빈 책에 사경해 한지로 맨 것이었다. 이런 실정이니 염불을 익힐 경우 갱지를 B5나 A4 용지 크기로 잘라서 앞 뒤 면에 백백이 써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익혔다. 스님께서 설령 '재받이중'은 안하더라도 중이 마지밥은 내려먹을 줄 알아야된다며 기본적인 법요 의식을 익히라고 하셨지만 나는 염불중은 하지 않을 거니까 배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출타하셨다. 공양주와 나만 남게 되었는데 사시 무렵이 되자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20여명이 기도를 하러왔다. 나는 약간은 당황했지만 법요집을 보고 해주면 되겠지 하고 별다른 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축원카드를 찾아 가지고 기도하러 법당엘 들어가 보니 평소에 늘 탁자에 있던 석문의범과 법요의식을 베껴 써둔 노트마저 보이지 않았다. 매우 난감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고 천수경과 예불문 까지는 했다. 다음이 문제였다. 그 이외는 외워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기도하다가 말고 탁자 밑과 불단 밑을

날마다 손수 도량청소
"정재유실 절대 안된다"

여기 저기 뒤적거리며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침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진땀이 났다. 급기야는 신도들도 기도를 중단하고 법요집을 찾으러 온 도량을 뒤지고 다녔다. 한시간도 넘게 방마다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도 신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와 함께 이방 저방을 열심히 찾아 다녔다. 나는 거의 정신이 없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신도회장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스님, 불공기도는 그냥 한 것으로 하고 이제 마칩시다" 했을 때 나는 지옥에라도 와 있는 듯 했다. 며칠간 출타하실 거라던 정원스님은 오후 늦게 대중들과 함께 돌아왔다. 신도회장도 함께 왔다. 걸망 속에서 석문의범과 여타의 법요의식을 써둔 노트들을 꺼내놓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쓰다 달다 한 마디도 못하고 법요의식을 익혔다.

스님께서는 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수행자다운 수행을 못하고 지금껏 허송세월 한 것이 제일 마음 아프다. 지금이라도 피나는 정진을 해야겠지만 나이 80이 되어 몸은 이미 늙었고 또 공부에 길들여지지 않아 뜻과 같지 않다. 젊다고 자랑말고 정진 열심히 해라. 다른 것은 사실 별게 아니다. 자기 마당 하나 쓸 줄 모르는 위인들이 도인임네 하고 남 앞에서 이름날리는 것은 엄격히 따지지 않더라도 위선이다.이름 날리는데 힘쓰지 말고 공부하는데 힘써라. 지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하물며 무엇이 필요하겠어."

스님께서는 70대 후반인 지금도 좀처럼 쉬는 일이 없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망상 생긴다며 날마다 도량 구석구석의 잡초를 뽑고 쓸기를 하루에도 수 차례씩 하신다. 강원도 건봉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 때다. 종무행정에 관한 업무를 스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 또 말로 돈을 몇 천만원 혹은 몇 억원을 주고는 1주일이나 10일 안에 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장부와 결산을 복식부기로 하게 시켰다. 지금 같으면 전자계산기라도 있지만 나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주산을 사용할 줄 몰랐다. 부기 또한 할 줄 몰라 여간 힘들지 않았으나 작은 오차나 실수를 용납 안했다. 예, 결산 심사를 실제처럼 했고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야단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중에 따라 참회기도까지 시켰다. 실제 돈을 주신 것도 아닌데 하고 대꾸하면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잘못을 하는데 실제 돈을 손에 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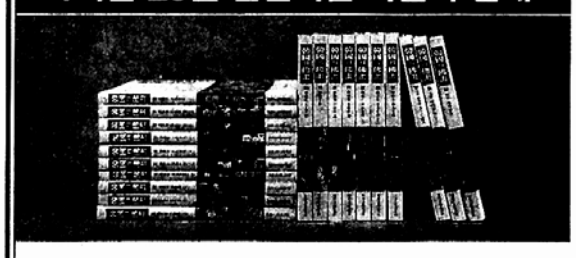
집행할 경우 무슨 과오를 저지를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더욱 심하게 꾸짖으셨다. 예, 결산뿐 아니고 종무행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반복해서 시켰다. 중(僧)공부를 안 가르치고 왜 사무일만 가르칩니까 하고 따지면 제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도 씩이나 논하느냐고 하셨다. 지금이사 그때 스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알지만 당시 사미시절에는 스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

스님께서는 출가 전에 전매청과 경찰간부로 재직하신 적이 있다. 행정에 밝다보니 출가한 후 사찰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사찰재산이 알게 모르게 유실되고 사유화돼 가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다 못해 분개하셨다. 털끝 만한 사욕과 사심도 용납하지 않는 스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편히 먹고 자고 수행 정진하는 사찰과, 사찰 소유의 재산들이 옛날 스님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모은 재산인데, 못난 후손들이 하라는 수행은 안하고 절까지 망해먹고 있으니 복장 터질 일이라며 애통해 하신다. 스님들이 도를 닦고 수행정진만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진할 터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존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후손들이 정진하고 교화할 터전이기 때문이란 것이 정원스님의 한결 같은 뜻이다.

정취암 주지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識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범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지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